박완서 그림동화

7년 동안의 잠

김세현 그림

어린이 작가정신

야! 고소한 냄새다! 먹이다! 냠냠 맛있겠군..... 어린 개미가 찾아낸 먹이는 여태
까지 보아 온 무엇과도 비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일개미
병정개미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부지런한 일개미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서 이 놀라운 소식을 알리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저 먹이를 제자리에서 치워 버리고 대로
지켜서 식량 창고로 옮겨 오기 위해 마을에 있는 모든 광을 하나를 비워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 고생을 하지 않고 있는 개미들은 이 여왕개미의 시간에
놀라움에 차 있었습니다. 어린 개미의 소식을 들은 개미 마을 늙은 개미가 점잖게 말
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이 가보도록 하자. 늙은 개미 줄이 뒤를 따라갔습
니다. 어린 개미가 앞장을 서고 다른 일개미들이 줄을 지었습니다.
모두 기운이 솟아 개미들의 행진은 빠르고 힘찼습니다. 어린 개미의 말대
로 과연 먹이가 있었습니다. 싱싱한 과자 토막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반쯤 거리는 두꺼
운 가죽을 벗고 있는 그놈은 아직도 살아 있는지 같은 속에서 열심히
꿈틀거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사나운 먹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개미

글 **박완서(1931-2011)**

1931년 경기도 개풍에서 태어났습니다. 숙명여고를 졸업하고, 1950년 서울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했으나 한국전쟁으로 중퇴하였습니다. 1970년 마흔이 되던 해에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에 『나목』이 당선되어 등단하였습니다.

작품으로 장편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아주 오래된 농담』 등이 있고, 단편집으로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엄마의 말뚝』 『저문 날의 삽화』 『너무도 쓸쓸한 당신』 등이 있으며, 산문집으로는 『꿀찌에게 보내는 갈채』 『한 길 사람 속』 『어른 노릇 사람 노릇』 등이, 짧은 소설집으로 『나의 아름다운 이웃』이 있고, 동화집으로 『부숭이는 힘이 세다』 『자전거 도둑』 등이, 장편동화 『이 세상에 태어나길 참 잘했다』 등이 있습니다.

한국문학작가상, 이상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이산문학상, 현대문학상, 동인문학상, 대산문학상, 황순원문학상 등을 수상하였고, 2011년 문학적 업적을 기려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그림 **김세현**

1963년 충남 연기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성장하고,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했습니다. 2004년 제4회 출판미술상을 받았으며, 2009년에는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 주빈국관 원화 전시 작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린 책으로 『만년 샤쓰』 『부숭이는 힘이 세다』 『외딴 마을 외딴 집에』 『준치 가시』 『엄마 까투리』 『청구회 추억』 『신과 인간이 만나는 곳 종묘』 『은혜 갚은 꿩 이야기』 『꽃섬』 『꽃그늘 환한 물』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오소리와 벼룩』 『동백꽃』 『임금이 부른들 이 집에서 나갈까』 등이 있습니다.

도란도란 우리 그림책

7년 동안의 잠

초판 1쇄 인쇄일_2015년 1월 20일 | 초판 1쇄 발행일_2015년 2월 10일

글_박완서 | 그림_김세현

펴낸이_박진숙 | 펴낸곳_작가정신 | 출판등록_1987년 11월 14일(제1-537호)

책임편집_윤소라 | 디자인_노민지

마케팅_김미숙, 박성신 | 디지털 콘텐츠_김영란 | 관리_윤서현

주소_413-756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07 2층

전화_(031)955-6230 | 팩스_(031)944-2858 | 이메일_kids@jakka.co.kr | 홈페이지_www.kidsjakka.co.kr

글 ⓒ 박완서, 2015, 1982

그림 ⓒ 김세현, 2015

ISBN 978-89-7288-768-3 74810

ISBN 978-89-7288-620-4 (세트)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5001060)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도서출판 작가정신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어린이작가정신은 도서출판 작가정신의 어린이 브랜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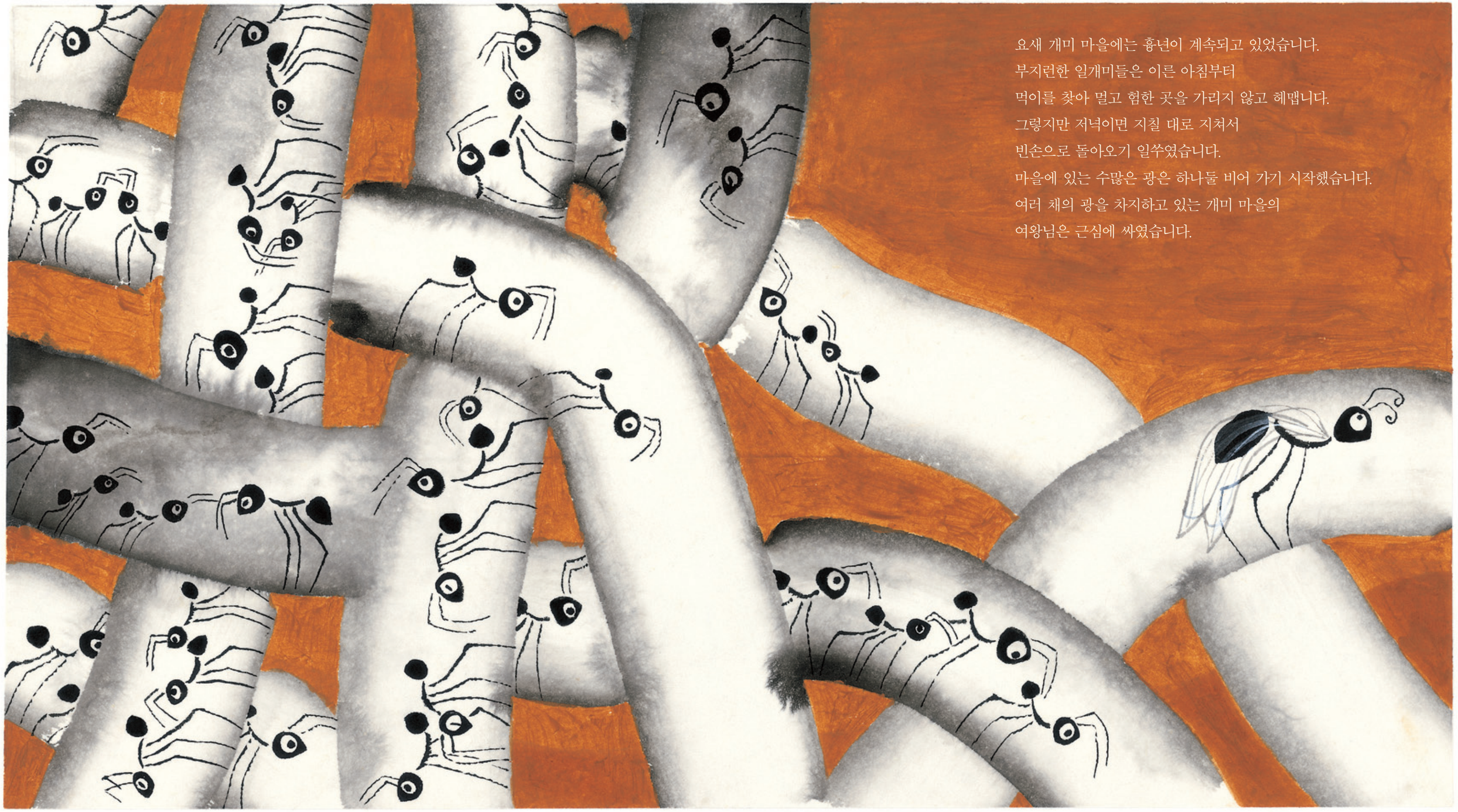
박완서 그림동화

7년 동안의 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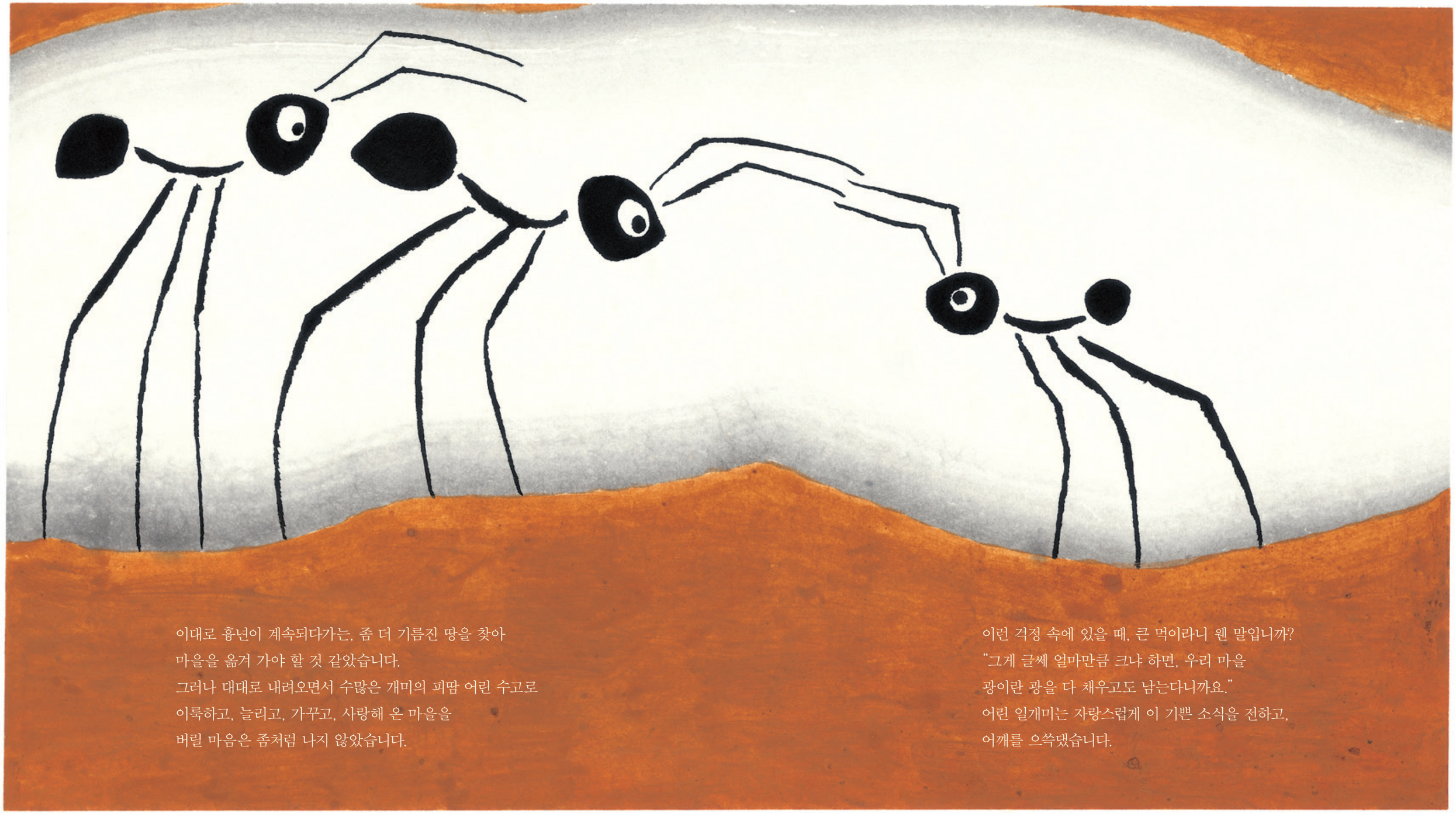
김세현 그림

어린이 작가정신

"야, 크고 싱싱한 먹이다. 싱싱하고 큰……."
어린 일개미가 찾아낸 먹이는
여태까지 보아 온 그 무엇과도 비길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요새 개미 마을에는 흉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한 일개미들은 이른 아침부터
먹이를 찾아 멀고 험한 곳을 가리지 않고 헤맵니다.
그렇지만 저녁이면 지칠 대로 지쳐서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마을에 있는 수많은 광은 하나둘 비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채의 광을 차지하고 있는 개미 마을의
여왕님은 근심에 싸였습니다.



이대로 흉년이 계속되다가는, 좀 더 기름진 땅을 찾아
마을을 옮겨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대대로 내려오면서 수많은 개미의 피땀 어린 수고로
이룩하고, 늘리고, 가꾸고, 사랑해 온 마을을
버릴 마음은 좀처럼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걱정 속에 있을 때, 큰 먹이라니 웬 말입니까?
"그게 글쎄 얼마만큼 크냐 하면, 우리 마을
광이란 광을 다 채우고도 남는다니까요."
어린 일개미는 자랑스럽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어깨를 으쓱댔습니다.

어린 개미의 이 소식을 들은
개미 마을은 삽시간에 술렁거렸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얼른 가 보도록 하자."
늙은 개미가 점잖게 말했습니다.
어린 개미가 앞장을 서고, 다른 일개미들이
줄줄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온종일 헛수고로 지친 개미들이었지만,
크고 싱싱한 먹이라는 소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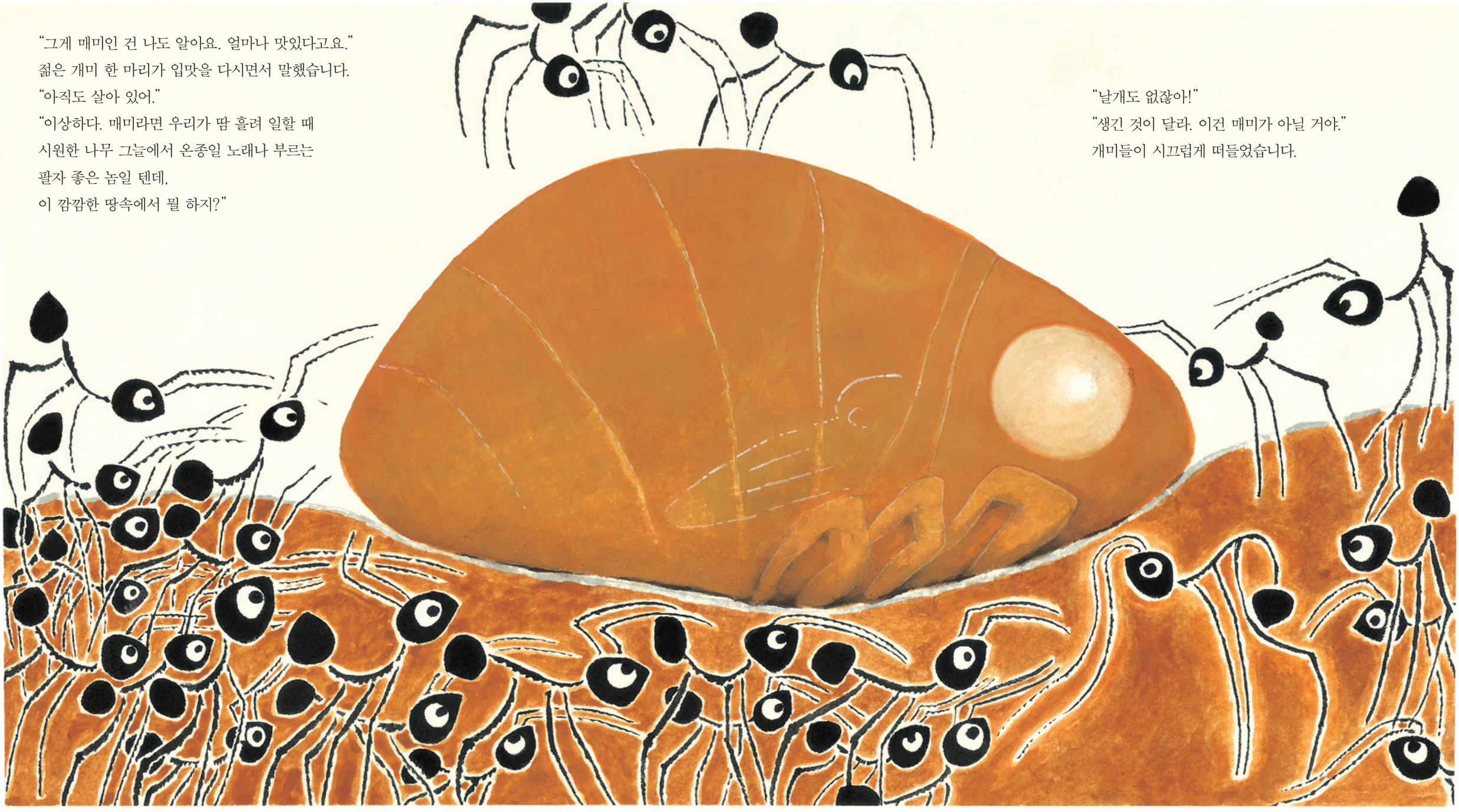
새로운 기운이 솟아,
개미들의 행진은 빠르고 힘찼습니다.

어린 개미의 말대로 과연 큰 먹이였습니다.
싱싱한 것도 틀림이 없나 봅니다.
반짝거리는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는 그놈은,
아직도 살았는지 갑옷 속에서
열심히 꿈틀거리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사나운 먹이도 두렵지 않습니다.
개미들은 작지만 워낙 수가 많으니까요.
그 큰 먹이는 금방 새카만
개미 덩어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물러가 있어라."
늙은 개미가 먹이를 덮친 개미들에게 외쳤습니다.
젊은 개미들은 늙은 개미를 존경했습니다.
그에게는 젊은이들에게 없는 의젓함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늙은 개미는 개미들이 물러나자
그 모습을 나타낸 먹이의 둘레를
느릿느릿 한 바퀴 돌고 나서 말했습니다.
"매미구나."

"그게 매미인 건 나도 알아요. 얼마나 맛있다고요."
젊은 개미 한 마리가 입맛을 다시면서 말했습니다.
"아직도 살아 있어."
"이상하다. 매미라면 우리가 땀 흘려 일할 때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온종일 노래나 부르는
팔자 좋은 놈일 텐데,
이 깜깜한 땅속에서 뭘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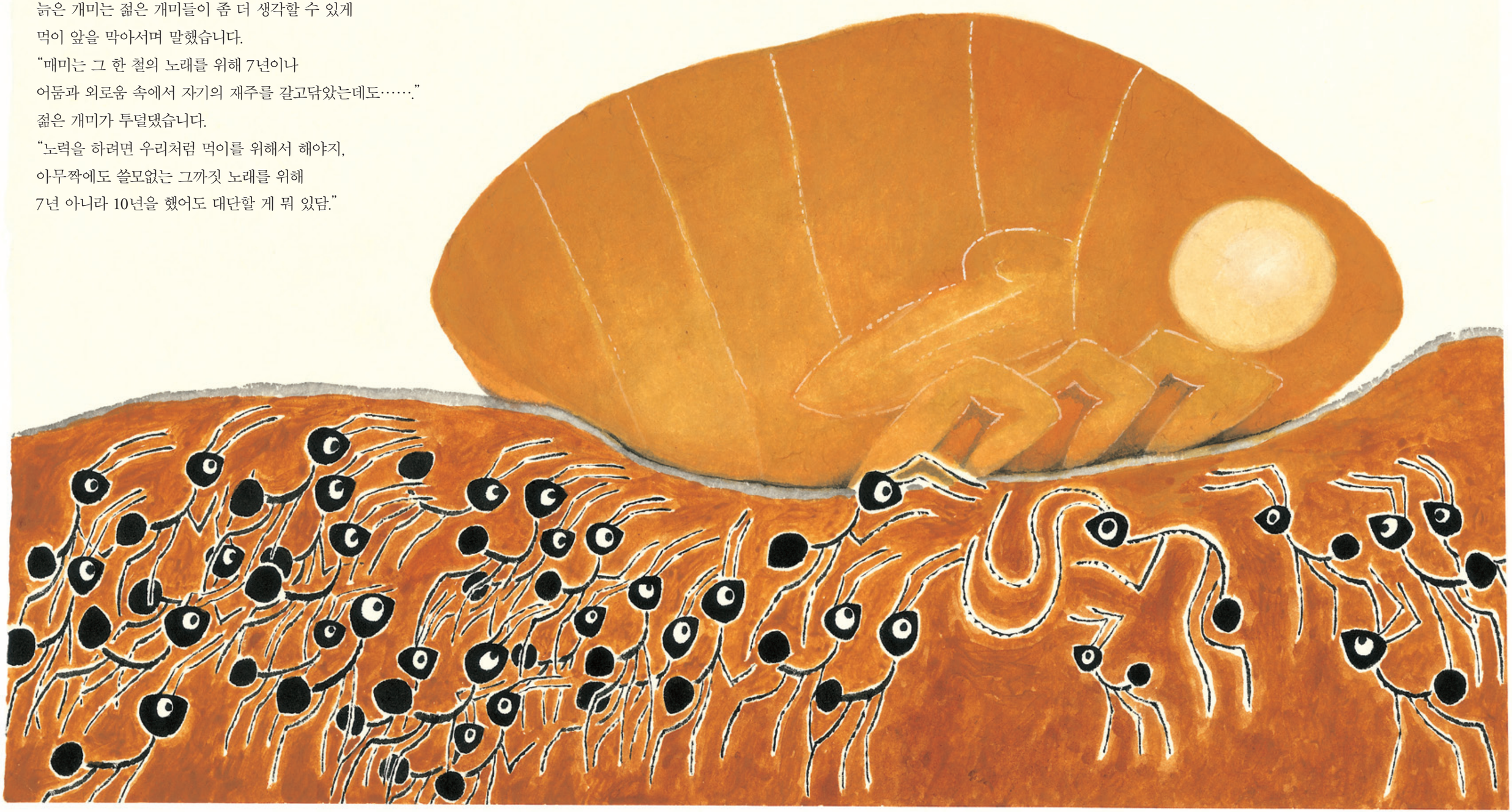
"날개도 없잖아!"
"생긴 것이 달라. 이건 매미가 아닐 거야."
개미들이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조용히들 들어라. 이건 틀림없는 매미란다.
매미는 한여름을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노래 부르기 위해
몇 년이나 어두운 땅속에서 날개와 목청을 다듬는단다.
보아하니, 이 매미는 5년도 넘게 참고 기다렸겠는데?
내 짐작이 틀림없다면, 7년은 족히 됐을라.
한여름의 노래를 위해서 7년을……."

개미들은 7년이 그저 기나긴 시간이라는 것밖에는
그것이 얼마만 한 동안인지를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여태껏 그들이 살아온 동안의 몇 곱절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마치 '용용 죽겠지.' 하는 것처럼
팔자 좋게 노래나 부르는 매미는 우리들의 먹이가 돼도 싸요.
어서 우리 마을의 광 속으로 나르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늙은 개미는 젊은 개미들이 좀 더 생각할 수 있게
먹이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매미는 그 한 철의 노래를 위해 7년이나
어둠과 외로움 속에서 자기의 재주를 갈고닦았는데도……."
젊은 개미가 투덜댔습니다.
"노력을 하려면 우리처럼 먹이를 위해서 해야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까짓 노래를 위해
7년 아니라 10년을 했어도 대단할 게 뭐 있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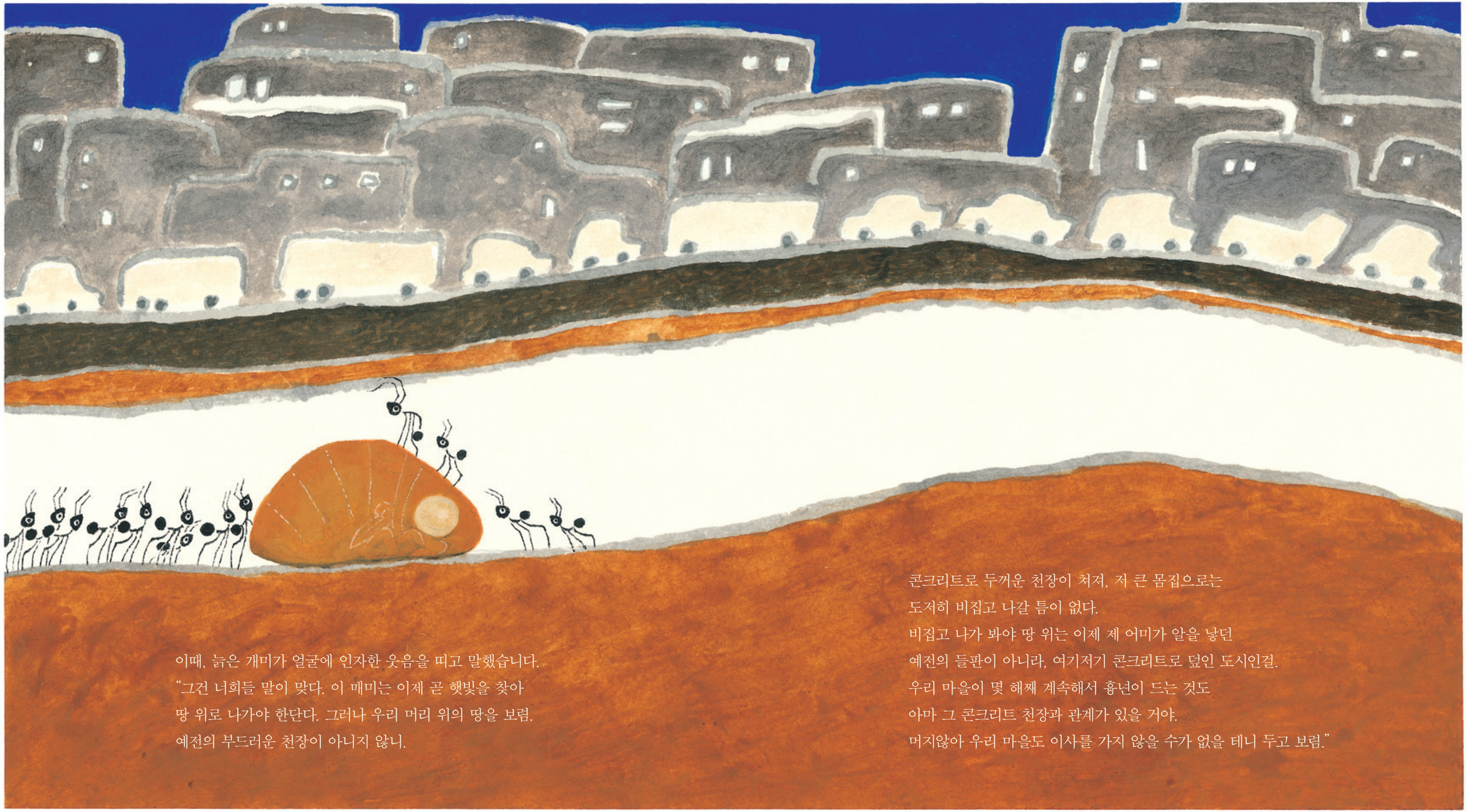


그러자 또 다른 개미들이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매미의 노랫소리가 참 듣기 좋았는데.
일하는 고달픔이 가실 만큼……."
"나도야. 매미의 노래를 들으며 나는 처음으로
땅 위의 여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알았어."

"나도 네 기분을 알 것 같아. 언젠가 친구들하고
뙤약볕 아래에서 송충이 한 마리를 끄느라
애를 쓰고 있었는데, 매미 소리가 들리잖아?
여름의 산과 들이 햇빛에 빛나는 걸
정신없이 바라볼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매미의 노래 때문이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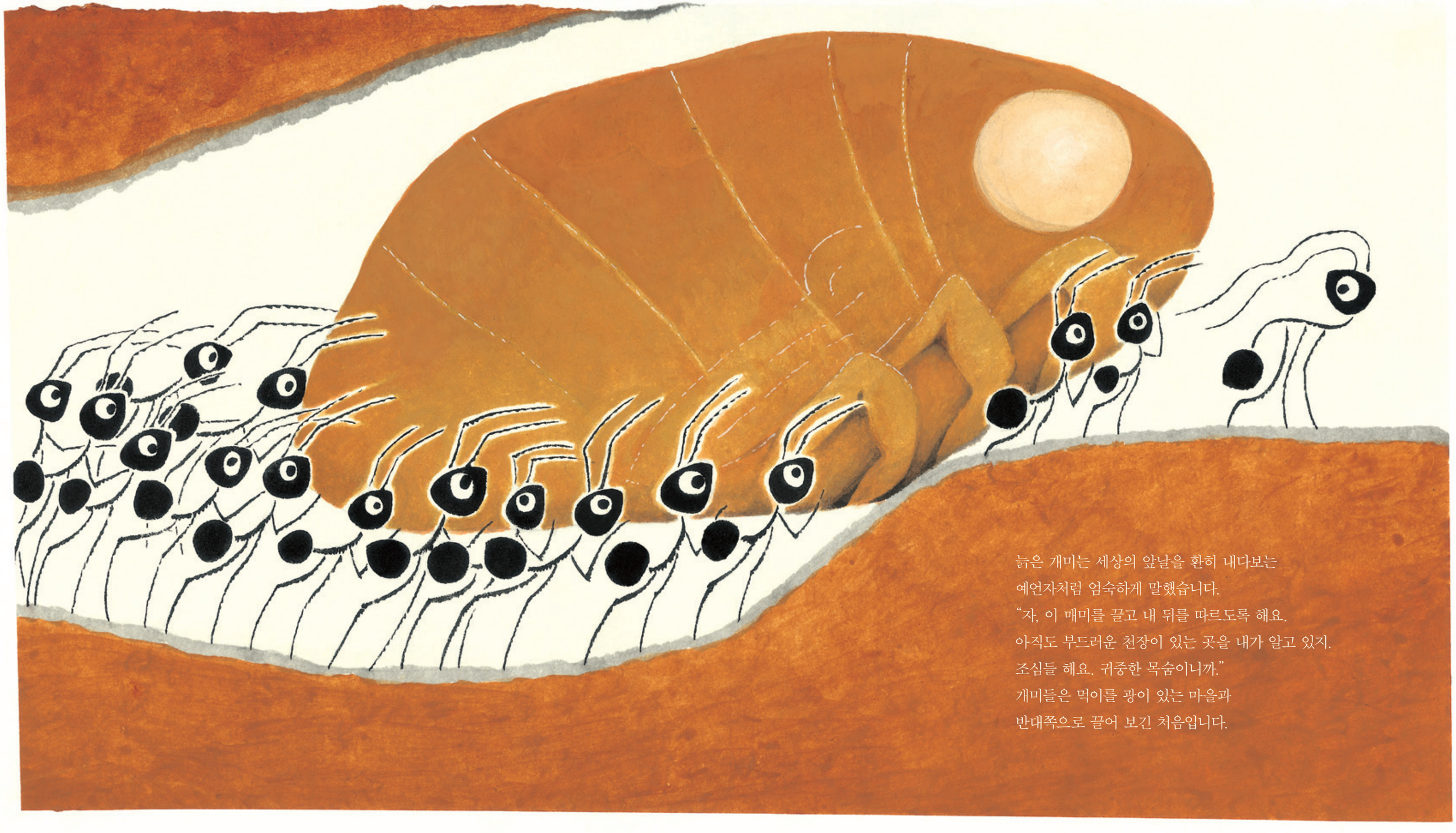
"그렇담, 이 매미를 살려 주란 소리가 되잖아.
가만있자, 이게 정말 매미일까?
이 두루뭉수리 갑옷 속에서 꿈틀대는 게."
"아닐 거야. 높은 나무로 날아오를 날개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도 보이지 않는걸.

무엇보다도 이게 매미라면 햇빛을 찾아
땅 위로 나갈 수가 있어야 할 텐데,
그걸 못 하고 우리의 포로가 된 것만 봐도
이건 매미가 아닌 게 분명해."
개미들은 또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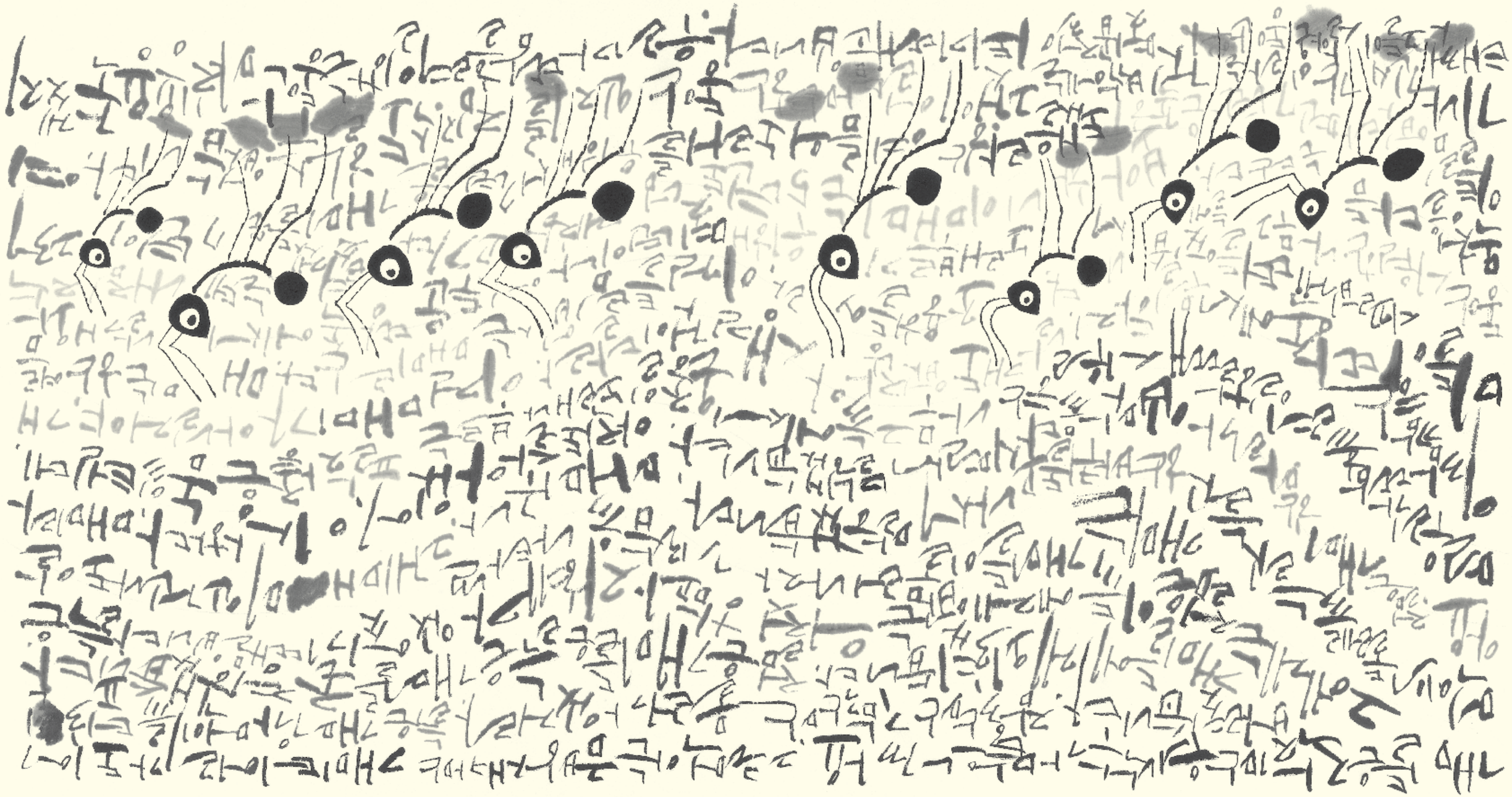


콘크리트로 두꺼운 천장이 쳐져, 저 큰 몸집으로는
도저히 비집고 나갈 틈이 없다.
비집고 나가 봐야 땅 위는 이제 제 어미가 알을 낳던
예전의 들판이 아니라, 여기저기 콘크리트로 덮인 도시인걸.
우리 마을이 몇 해째 계속해서 흉년이 드는 것도
아마 그 콘크리트 천장과 관계가 있을 거야.
머지않아 우리 마을도 이사를 가지 않을 수가 없을 테니 두고 보렴."

이때, 늙은 개미가 얼굴에 인자한 웃음을 띠고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들 말이 맞다. 이 매미는 이제 곧 햇빛을 찾아
땅 위로 나가야 한단다. 그러나 우리 머리 위의 땅을 보렴.
예전의 부드러운 천장이 아니지 않니.



늙은 개미는 세상의 앞날을 환히 내다보는
예언자처럼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매미를 끌고 내 뒤를 따르도록 해요.
아직도 부드러운 천장이 있는 곳을 내가 알고 있지.
조심들 해요. 귀중한 목숨이니까."
개미들은 먹이를 광이 있는 마을과
반대쪽으로 끌어 보긴 처음입니다.

얼마만큼 왔을까?
개미들은 그들이 별로 힘을 안 들이고도
매미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깨닫고 서로 얼굴을 마주봅니다.
매미의 움직임이 점점 더 활발해집니다.
이젠 오히려 개미들이 매미에게 이끌리고 있습니다.
개미들과 매미는 어느 틈에 땅 위로 나와 있었습니다.

마침 나무 밑입니다.
매미는 이제 개미들을 뿌리치고
저 혼자 힘으로 나무로 기어오릅니다.
이런 매미를 숨죽이고 지켜보는 개미들 앞에서,
드디어 아름답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미의 갑옷 등이 부서지면서, 다 자란 매미 한 마리가
빛나는 날개를 펴고 공중으로 날아오른 것입니다.
개미들은 먹이를 영영 놓쳤으나,
그걸 지켜보던 개미들은 기쁨에 차서
매미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